

Light사에 500만 달러의 운전자금 보증을 제공했다. 차주는 캘리포니아 Union Bank로서 본 보증으로 PowerLight사는 운전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단지인 독일의 Bavaria Solarpark에 태양광 추적기술을 수출하였다. Bavaria Solarpark는 지역 발전망의 일부로서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9,000여 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owerLight사는 Solarpark 건설에 57,600개의 실리콘과 알루미늄 패널을 공급한다.

미 수은은 재생에너지 시장 중 특히 독일 시장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물품 및 용역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8월에도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Evergreen Solar사에 500만 달러의 운전자금 보증을 제공했다. 이러한 미 수은의 지원정책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시장을 공략해 자국의 태양에너지 기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 수은의 단기운전자금보증 프로그램은 미국 내 수출업체, 특히 중소 수출업체에게 수출관련 단기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에 대해 그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업계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출업체는 미 수은의 보증을 이용해 상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수출상품을 생산하고, 수출관련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미 수은의 운전자금 보증은 사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한이 정해진 복잡한 수출거래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 수은의 운전자금보증은 유럽, 특히 독일의 대미 수입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미 수은은 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물품 및 용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운전자금 보증 뿐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Environmental Exports Program)을 통한 자금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수출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을 제공하며 중장기 수출에 대해선 건설기간 중 이자와 계약 금액 15% 한도의 현지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미 수은의 프로그램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응 호】

◆ 미 수은 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에 대한 핵발전소 건설사업 대출/보증 예비승인

미 수은은 최근 Westinghouse 전력회사가 요청한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대 중국 직접대출 및 보증에 대한 예비승인(preliminary commitments)을 결정하였다. 본 대출은 중국 2개 지역 4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Bechtel

전력회사도 공급자로 참여하며,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승인은 중국 정부가 동부 연안 공업지역에서의 전력부족 해결을 위한 핵발전소 건립계획 입찰에 참여하는 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에는 자국의

금융지원을 받는 다른 해외기업들도 입찰에 참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Westinghouse사는 최신의 안전장치를 보

유한 1,000메가와트급 AP1000 원자로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절강성 산멘(三門)과 광둥성 양장(陽江)이다.

【안 응 호】